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사회계열]

수험번호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수험번호, 성명 등 본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내지 말 것 2.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 3. 각 문제별로 정해진 분량의 글을 쓰고, 연습은 문제지를 이용할 것 4. 필기구는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할 것 (연필, 샤프, 지우개 사용 가능/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성명	

※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가> 맹자에 따르면, 마음과 감각 기관의 활동 방식은 정반대이다. 귀나 눈과 같은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작은 몸’은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게다가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규범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와는 반대로 움직인다. 마음은 외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 따라서 마음의 활동은 감각 기관의 활동과 달리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

맹자는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맹자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작은 몸’을 기르는 일이다. 그러나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단지 ‘작은 몸’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긴다 하더라도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작은 몸’뿐 아니라 ‘큰 몸’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작은 몸’인 감각 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마음에 있다. 이는 각 개인이 저지르는 잘못과 그 책임의 소재를 말해 준다. 언뜻 보기에 각 개인이 저지르는 잘못은 감각 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제 역할을 해 나갈 때, 마음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오관(五官)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 각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가게 한다. 마음의 활동에 감각 기관의 활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뜻(지향)을 붙잡는 일은 수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 장원태,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 부분

<나> 내가 처음 요동(遼東)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띄약별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 리 너머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이다.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솨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

으려는 것일 뿐이었다.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요동 별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遼河)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리어, 한창 별별 떨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볼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데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별별 떨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이제 도(道)를 깨달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방금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 주고 말을 강물에 등등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을 모두어 말 안장 위에 앉았다. 한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대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性情)처럼 여기었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나의 귓속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무려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너는 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마치 안석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하였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부분

<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뉘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문제 1】 제시문 <가>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나>와 <다>를 설명하시오. (500±25자) [100점]

※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법치주의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른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법치주의가 강조된 것은 근대 시민 혁명 이후이다. 초기의 법치주의는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보다는 의회 제정이라는 형식적인 합법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법의 제정 주체와 절차의 합법성과 같은 통치의 형식을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법이 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법 이념에 실질적으로 부합해야 법이 정당성을 가진다는 법치주의가 강조된다. 즉 법이 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보장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경찰은 며칠 뒤 발표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심을 당부하기 위해 3월 20일까지를 제1단계 계몽 운동 기간으로 정해 경범 정화 운동을 편다. 경범죄 위반자는 즉결 심판에 회부한다. 경찰은 앞으로 11개 항목을 특별 단속할 예정인데,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범위 등 조심히 해야 할 일을 살펴본다.

제 1조 44호: 공중의 눈에 띄이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을 착용하거나 또는 치부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

제 1조 49호: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

『경향신문』(1973.3.9.) 수정 인용

박정희 정부는 1973년 3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여 귀를 덮을 정도로 머리가 긴 장발과 무릎 위 17cm 이상인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을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위와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가 긴 사람을 적발하여 현장에서 머리를 깎았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을 단속하였다.

<다>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였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인종 차별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러한 차별은 187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시행된 소위 「짐 크로(Jim Crow)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짐 크로법」은 공공 기관 등에서 인종을 분리하여 흑인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법들을 가리킨다. 「짐 크로」는 어리숙한 흑인을 희화한 쇼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다. 인종 분리와 차별을 제도화한 법들로 인해 흑인은 백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버스나 화장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조차 차별을 받았다.

흑인들은 「짐 크로법」에 따른 통치에 저항하였다. 1896년 호머 플래시(Homer Plessy, H.)는 열차의 백인 차량에 탑승하여 흑인 차량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인종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법이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었지만, 연방대법원은 「분리하되, 평등하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흑인들뿐 아니라 다수의 백인들도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피부색에 의해 투표권이 제한되어서

는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1964년 「시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이 제정되었고, 「짐 크로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합뉴스』(2015.6.23.)

<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직장인,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야간 옥외 집회를 할 때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동아일보』(2009.9.25.)

<마>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의식적으로 위반한다.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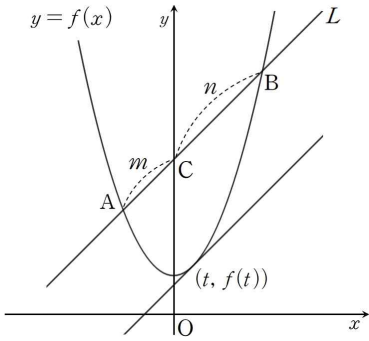
[문제 2] 제시문 <가>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요약하고, 각각의 관점에 해당하는 사례를 <나>, <다>, <라>, <마>에서 선정하여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00±25자) [100점]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자연계열]

수험번호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수험번호, 성명 등 본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내지 말 것 2. 답안은 각 문항별로 정해진 답안지 내에 서술할 것 (답안 작성 영역을 벗어난 풀이는 채점하지 않음) 3. 연습은 문제지를 이용할 것 4. 필기구는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할 것 (연필, 샤프, 지우개 사용 가능/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성명		

[문1]

양수 t 에 대하여 함수 $f(x) = x^2 + 1$ 의 그래프 위의 점 $(t, f(t))$ 에서의 접선에 평행하고, 곡선 $y = f(x)$ 와 서로 다른 두 점 A, B 에서 만나는 직선 L 이 있다. 직선 L 이 y 축과 만나는 점 C 는 선분 AB 를 $m:n$ ($0 < m < n$)으로 내분한다. (단, 점 A 의 x 좌표는 음수이고, 점 B 의 x 좌표는 양수이다.)



[문제 1-1]

$t = 1$ 일 때, $m = 1, n = 2$ 를 만족시키는 직선 L 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20점]

[문제 1-2]

$t > 1$ 일 때, $m = 1, n = 2$ 를 만족시키는 직선 L 에 대하여 직선 L 과 곡선 $y = f(x)$ 및 두 직선 $x = 1, x = t$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t)$ 를 구하시오.

[40점]

[문제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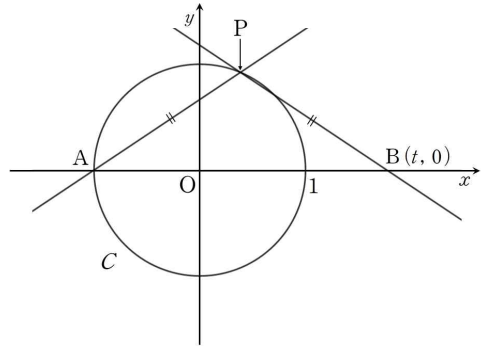
$t > 0$ 일 때, $m = t, n = t + 1$ 을 만족시키는 직선 L 의 기울기를 $g(t)$, y 절편을 $h(t)$ 라 하자. $\lim_{t \rightarrow \infty} \frac{2\sqrt{h(t)} - \{g(t)\}^2}{2t}$ 의 값을 구하시오.

[40점]

[문2]

좌표평면에서 원점 O 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 와 점 $A(-1, 0)$ 이 있다. x 축 위를 움직이는 점 $B(t, 0)$ ($-1 < t < 3$)에 대하여 점 P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원 C 위를 움직인다.

- (가) 점 P 의 y 좌표는 양수이다.
 (나) $\overline{AP} = \overline{PB}$



[문제 2-1]

$t = 0$ 일 때, 점 P 를 P_1 이라 하고, $t = 2$ 일 때, 점 P 를 P_2 라 하자. 부채꼴 OP_1P_2 의 호의 길이 l 과 넓이 S 를 구하시오.

[25점]

[문제 2-2]

원점 O 와 점 P 를 지나는 동경 OP 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θ 라 하고, 원 위의 점 P 에서의 접선이 x 축과 만나는 점을 Q 라 하자. \overline{BQ} 가 최소일 때, 직선 AP 의 기울기 m 을 구하시오. (단, $t \neq 1$ 이다.)

[40점]

[문제 2-3]

자연수 n 에 대하여 점 $B\left(3 - \frac{4}{4^n + 1}, 0\right)$ 일 때, 직선 AP 의 기울기를 a_n 이라 하자. 부등식 $\log \frac{1}{a_n} > 10$ 을 만족시키는 n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단, $\log 2 = 0.30$ 으로 계산한다.)

[35점]